

여러분이 쓴 이야기

# 무대 공포증



그랜트 에스, 10세, 미국 워싱턴주

**제**가 어렸을 때 와드에서 재능 발표회를 한 적이 있어요. 저는 엄마랑 클로킹(춤의 한 종류)을 추기로 했죠. 춤이 완벽해질 때까지 엄마와 연습을 했어요.

재능 발표회가 시작되고 저희 차례가 되었을 때 그제야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. 저는 무대에 올라가고 싶지 않아서 초등학교 교실로 도망쳤어요.

나중에 문 옆에서 떨고 있는 저를 엄마가 찾아내셨어요. 엄마는 제가 무서워하는 것을 보시고는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어요.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.

엄마와 무대에 올라갔을 때 무섭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어요. 엄마와 저는 멋지게 춤을 추었어요. 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아요. ●

